



바르게 생활하고
슬기롭게 배우며
씩씩하게 자라자

사랑 · 꿈 · 믿음이 있는 즐겁고 신나는 행복한 용안교육

용안 여름소식

<http://www.yongan.es.kr> ☎ 861-3610

발행인: 교 장 고삼순
편집인: 교 감 이승용
역은이: 실무사 박은정

발행일: 2022.7.26.

여름방학 안내

- ☉ 방학기간: 2022.7.28.(목)~2022.8.29.(월)
- ☉ 국기 다는 날(광복절): 8.15.(월)
- ☉ 방과후학교(돌봄): 8.1.(월)~8.12.(금), 9:00~12:00
(통학버스 운영, 점심제공)
- ☉ 개학 하는 날: 2022.8.30.(화)

즐거운 여름 방학을 맞아 학습의 장을 학교에서 가정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불규칙한 생활을 하여 나태해지기 쉬울 때입니다.

방학 동안 어린이들이 규칙적이고 폭염, 코로나19 예방수칙 지키며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하여 주시고, 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계획표를 세워 뜻있고 보람찬 방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이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바리움 액자 꾸미기 1학년 작품



2022학년도 학부모 공개수업

6월 23일에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나은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자 전 교사 대상으로 **학부모 공개수업**이 있었습니다.

공개수업을 통해 학부모님은 자녀들의 교육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푸른꿈 많은생각 표현전 참가

전라북도교육청이 주최, 전북중등미술교육연구회 주관한 “제 16회 푸른 꿈 많은 생각 표현전 공모”가 열렸습니다. 우리학교에서는 시화부문에 5학년 이진주, 이현선, 최가희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평소 틈틈이 틈새시간과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서로 소통하며 시화 꾸미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현선 학생은 시화부문 특선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외 학생들은 실망하기보다는 다음 표현전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꿈과 이상이 담긴 창의적이고 참신한 내용으로 참가하여 소질계발 및 성취감을 만끽하는 모습을 기대하여 봅니다.



즐거운
여름방학
안전하고
재미있게



동생

장난꾸러기 내동생
장난이 끊겨서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귀여운 내동생
벌거벗은 걸로 웃는
알려준 내동생
가끔은 내 맘도
잘 들어주는
착한 내동생



언어

언어를 배우고
말하는 것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조건
언어를 배우고
말하는 것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조건



친구

너랑 있으면 재밌고
너랑 있으면 즐겁고
너랑 있으면 신나고
너랑 있으면 못지
니가 웃으면 나도 웃고
니가 울면 나도 울어
우린 함께하는
소중한 친구



「교실 속 숲 가꾸기」 포레 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본교는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여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노력하고자 학업징검다리(학업 중단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레 관계 증진 프로그램으로 다육식물 기르기, 이 오난사 테라리움 만들기 등의 ‘교실 속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받아 따뜻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 학년별로 6월2일(목)에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 및 성태도를 형성, 성적주체로서 자기보호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성 인권 의식 함양, 성희롱·성폭력 예방**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기대해 봅니다.



흡연 예방 아동극

6월21일(화) 전교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을 위한 아동극을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동극을 관람하고 금연표어를 외쳐보며, 흡연의 해로움을 알고 금연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여름휴가」 독후활동 나만의 바다 기념품 가게 꾸미기



2학년 이윤서



2학년 최강욱

디지털 성교육

7월 5일(화) **디지털 성교육**이 5,6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의미를 알고 디지털 상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체험학습

6월 3일에는 우리 용안초 학생들이 **임실치즈마을로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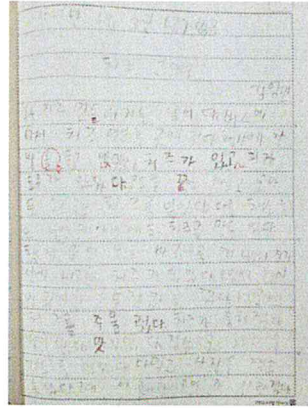
돈주고 사서만 먹던 피자를 도우부터 토핑까지 직접 만들어서 먹으니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4학년 우리들의 여름 일기

6월 3일(금) 치즈 고양이

4학년 김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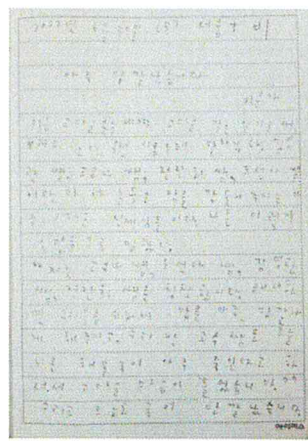


오늘은 치즈를 만들어 가는 날이다. 버스에 타서 치즈 만드는 곳에 갔다. 책상에 가방을 두고 앉았다. 치즈가 있고 피자 도우가 있었다. 오일을 끝에 바르고 토마토 소스랑 치즈를 넣었다. 다른 채소들도 넣었다. 이번에는 치즈를 만들었다. 책상 밑에 있는 바구니를 꺼냈다. 거기 안에 네모난 치즈가 있었다. 우영이 형이 장갑이랑 고무장갑을 꼈다. 네모난 치즈를 주물렀다. 치즈가 뭉쳐졌다. 먹어 봤다. 맛있었다.

6월 30일(목)

아주 맛깔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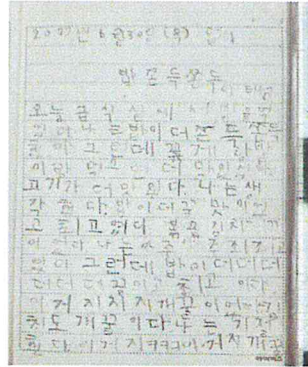
4학년 이윤아



오늘은 고마운 분들에게 고마운 말을 일기로 써보려고 한다. 우선 이름부터 말하겠다. 김영란 쌤, 고유나 쌤, 전진희 쌤, 도선아 쌤이다. 이 네 분들은 밥을 만들어주시는 아주 고마운 선생님들이다. 나는 이렇게 속마음으로 말했다.
"저는 쌤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위해서 밥을 아주 맛깔나게 해주시고 우리반 고수 쌤도 오늘 나온 해물탕이 아주 죽인다고 하셔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국이 맛깔났습니다.

6월 30일(목) 밥 존득존득

4학년 이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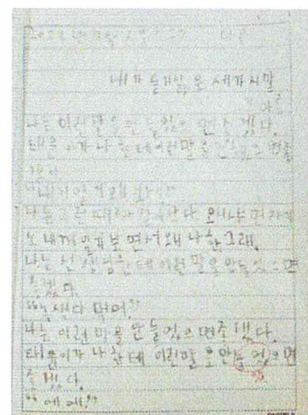


오늘 급식실에서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이 더 존득존득했다. 그런데 꽃게랑 밥이랑 먹으면 더 맛있었다. 고기가 더 맛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밥이 더 꿀맛이었고 최고였다. 볶음김치는 더 꿀맛이었다. 나는 아주 아주 최고였다. 그런데 밥이 더 더더더더 꿀이고 최고이다. 이거지지지 개꿀이었다. 김치도 개꿀이다. 나는 기절했다. 이거지, 이거지!

7월 6일(수)

내가 듣기싫은 세가지말

4학년 김아름



나는 이런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 태운이가 나한테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내 개 일기 왜 봐?"
나는 그런 때 짜증이 난다. 왜냐하면 자기도 내 개 일기 보면서 왜 나한테 그래.
나는 선생님한테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다.
"녹색 다 먹어."
나는 이런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 또 태운이가 나한테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에에," 이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쁘다.

제41회 익산교육장배 육상경기대회 참가

체력은 국력(國力)! 지난 6월 17일, 제 41회 '익산교육장배 육상경기대회'가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우리학교에서는 3학년 이우준, 4학년 이태운 5학년 이진주, 이현선, 최가희, 오승현, 정대겸, 6학년 강정민 이상 총 여덟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평소 틈새 시간과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훈련에 열심히 임하여 대회에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4학년 이태운 학생이 포환던지기에서 5위, 5학년 이진주 학생이 3위, 오승현 학생이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나 포환던지기 종목의 전통적인 강호다운 모습을 견고히 하였습니다. 아쉽게 순위 안에 들지 못한 학생들은 실망하기보다는 다음 경기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굳건히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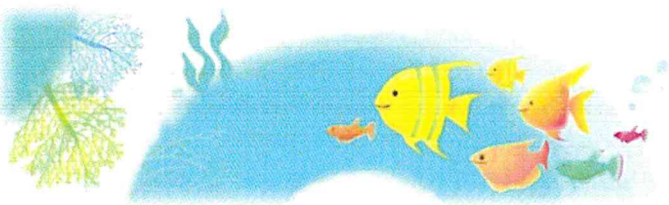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건전한 심신을 도모하여 내년 대회에서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들의 학교생활 이모저모

1학기 우리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은 다양한 배움과 실습과 체험이 함께 했습니다. 1학기 동안 성장했고, 나눔과 배려를 배웠습니다.

2학기에도 용안초 우리들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즐겁고, 재미있게 생활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물놀이 안전수칙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가족단위의 소규모로
방문하고
단체방문 자제하기



반드시 마스크를
그늘막 등은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어 실천하기



물놀이 후
물놀이는
마스크 착용하기



수건 수영복
수영장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물놀이 안전수칙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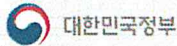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시듯
다리와 가슴을 가습



수영복과 안전
No!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YES!



간접접촉이 확실할 때는
음식물은 섭취 NO
음식을 섭취는
가급적 자제하기



대한민국정부

물놀이 준비운동 응용 동작



개인방역 6대 중요 수칙

- (수칙 1)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면역력 기르기"
- (수칙 2)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수칙 3)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수칙 4)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수칙 5)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 (수칙 6)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개인방역 10대 보조 수칙

1. 실내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2.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3. 환기가 안 되는 밀폐·밀집·밀접 장소 방문 자제하기
4. 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1미터 거리두기
5.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6.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 가리기
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소독하기
8. 발열,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9. 방학 중에도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하기
10. 여행 자제하기